

그 곳이 말했던 단 하나의 가치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 Children's National

Pediatric Cardiology Rotation

본과 4 학년 장서운

새벽 5 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간. 6 시에 출발하는 셔틀을 타려면 분주하게 나서야 했다. 대충 말린 머리를 가다듬고, 가방 한 칸에 가운을 걸친채, 도시락통과 물병을 집어 들고 무거운 아파트 대문을 밀고 나갔다. 어스름한 햇빛에 간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리가 눈에 들어왔다. 조용한 거리에 청소부,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조금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옆을 지나쳐 갔다. 셔틀로 가는 길은 이제 제법 익숙해져, 핸드폰의 지도는 주머니에 넣어두고 주위를 둘러보며 가는 여유 정도는 생겼다. 오늘은 언제쯤 다시 이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올지, 집 앞 베이글 집을 오늘은 문닫는 시간 전에 갈 수 있을지 가늠해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저 앞에 20 명 정도 태울 수 있는 작고 흰 버스가 눈에 보이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 아늑한 회색 의자에 푹 가라앉았다. 가방에 끼워 구겨져있는 가운을 펼쳐 옆자리에 놓아두고, 출발하기 전까지 창 밖의 거리를 쳐다보았다. 생각해보니 아침잠이 많은 내가 이렇게 몇 주 동안 이 셔틀을 타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다. 한국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이 이 모습을 직접 보고 놀라는 얼굴들이 눈 앞에 선했다. 버스는 출발했고, 눈을 붙였다가 밖을 구경했다가 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다. 바쁜 하루가 시작될거라는 기분에 가방 속에 들어있는 두꺼운 교과서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다. 빨간 줄에 매여진 학생증을 목에 매고 아무렇게나 가운을 걸친 뒤 카페테리아로 서둘러 향했다. 아침 컨퍼런스 시작 전, 조금 서둘러 카페테리아 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뜨거운 차를 마시는 여유가 나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배가 고프면 작은 빵도 사먹을 셈이었다. 녹차와 결국 집어든 손바닥만한 레몬 머핀을 가지고 높은 의자에 올라앉자,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큰 유리창 너머로 병원 밖 풍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한 입 크게 베어물자 입 안에서 툭툭 터지는 시나몬 향과 레몬의 어울림이 마음에 꼭 들었다. 뜨거운 녹차 한 모금과 함께 먹으니 달콤함이 배가 되는 듯 했다. 다먹은 머핀 봉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고 남은 차를 들고 서둘러

컨퍼런스 룸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제 제법 얼굴이 익숙한 펠로우들이 몇몇 보였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아침 컨퍼런스의 주제는 매일 다른 주제로 준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내가 이 곳에서 실습을 시작하던 주가 마침 새로운 1년차 펠로우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기였고, 그 때문에 주로 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침 컨퍼런스의 내용은 학생인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기초부터 다루면서도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볼 수 있는 기회였다. 가령 도플러에 대한 강의라면, 도플러의 물리학적 원리부터 실제적인 사용까지, 강의는 촘촘하게 짜여져있어 매번 한 시간을 딱 채우곤 했다. 컨퍼런스는 강의실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 병리에 대한 강의는 병리검사실로 내려가 실제 심장을 만져보며 진행되었고, cardiopulmonary stress test 는 강의 후에 교수님과 펠로우 한 명이 실제로 런닝머신을 달리며 체험하는 식이었다. 강의는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토론이 주였다. 강의 중간 중간마다 펠로우들은 자신이 입장에서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였고, 강의하는 교수님도 하나하나 대답하며 관련된 생각해볼 점에 대해 함께 토론하였다. 이론과 실체가 밀접하게 유기되어 가면서 전문가의 문턱에 서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이었다.

보통 아침 컨퍼런스가 끝나면 바로 병동으로 갔다. 병동에 가 그 날 회진할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읽거나 레지던트와 함께 직접 환자를 신체검진하며 회진을 준비했다. 회진 전이나 후에 펠로우가 15분 정도 레지던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입원해있는 환아들 중에 중요한 질병의 physiology 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작은 규모에서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며 질병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다. 이 병원에서의 선천성 심기형에 대한 접근방식을 이해해나가고 점차 실습에 적응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질문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펠로우의 강의를 진행될 때면, 그 주 회진 교수님은 펠로우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병동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오전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진행되었던 회진이 시작되었다. 회진은 병동 담당 레지던트, 펠로우 뿐만 아니라 간호팀, 영양팀도 함께 들었다.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 수는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정도로, heart failure 환아가 있으면 heart failure team 도 함께 들기 때문에, 회진을 도는 환자 수보다 회진을 도는 의료진의 수가 많을 때가 많았다. 실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나에게서는 여러 면에서 인상깊었던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실습을 할 때 경험하였던 보통의 회진은

병동의 환자를 보러가기 전에 스테이션에서 대부분의 보고와 치료방침 결정이 끝나고, 특별히 확인해야할 부분을 확인하러 환자를 보러가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 주치의가 맡은 환자의 수가 이 곳의 많을 때는 열 배 정도 되니, 시간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나에게 이 곳의 회진 방식은 매우 신선했다. 외국의 외래가 시간이 넉넉하고, 환자 당 시간을 더 할애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회진이나 병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병실은 거의 1 인실이었고, 각 병실 문의 위 쪽에 알람이 설치되어 이상 심전도가 감지되면 어느때든 바로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곳 어린이 병원 순환기 병동의 회진은 일주일마다 담당 회진 교수님이 달라지고, 3 주마다 병동 레지던트가, 2 주마다 담당 펠로우가 교체되었다. 병동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바뀌면서, 환자의 치료방침을 검토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회진은 보통 환자의 병실 내에서, 혹은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병실 밖에서 진행되곤 하였다. 주치의인 레지던트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직접 주소와 현병력, 치료 상황 등을 리뷰하였다. 특히, 쓰고 있는 약물의 용량과 용법을 상세하게 다루어 펠로우와 교수님, 그리고 간호, 영양팀이 다시 한 번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아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이의 약물에 대한 compliance, 영양의 섭취 방법과 형태, 그리고 전해질을 포함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의 균형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현병력을 검토할 때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physiology 는 어떤지,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것을 주의시키고 대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하는지까지에 대한 질문이 설새없이 오고갔다. 레지던트가 어떤 엉뚱한 대답을 하든, 질문을 한 펠로우나 교수님은 레지던트 스스로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게 했다. 심잡음에 대해 레지던트와 교수님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심초음파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농담하며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였다. 간호팀과 영양팀도 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해 묻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항상 회진을 도시는 교수님마다 먼저 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한 환자의 회진이 정리되면, 교수님은 환자의 신체검진을 직접 수행하셨다. 심잡음 청진과 전신 순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교수님과 함께 번갈아가며 신체검진을 한 후 결과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한 실습에 배정된 시간이 제한적이라 미처 경험해볼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선천성 심기형과 관련된 심잡음들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 용기내어 얻은 신체검진의 기회가 소중한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해 파악하고자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검색을 통해 physiology 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청색증을 보이거나 호흡곤란을 보이는 환아를 신체검진을 통해 그 physiology 를 예상하고, 소아라는 특성상 장기적인 치료방침을 환아에게 맞추어 구체적으로 짜 나가는 과정이 마치 답을 알기 어려운 퀴즈를 푸는 것과 같았다. 그런 면에서 소아 순환기가 매력적이지 느껴졌다. 회진이 끝나면, 펠로우나 교수님과 궁금했던 점에 대해 물었고, 보충할 부분은 레지던트와 함께 리뷰하였다. 보통 정오가 가까운 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 간단히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정오 컨퍼런스로 향했다.

정오에는 보통 순환기내과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를 가거나, 소아과 전체에서 레지던트 대상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우리 학교의 어린이병원처럼 pediatric grand round 가 준비되어,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과의 교수님, 레지던트, 학생들이 모여 케이스 리뷰를 하였다.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는 소아과에서는 레지던트,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분과의 교수님이나 윗년차 레지던트들이 준비한 교육 시간이 진행되었다. 전문의 시험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최근에 개정된 가와사키 병의 진단법에 대한 리뷰를 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흥미로웠다. 순환기내과 자체적으로는 수요일마다 병동, 순환기 중환자실, 응급실 환자 등을 리뷰하는 시간이 있어, 병동이나 외래에서 만날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월요일 오후에는 Surgical conference 가 있어 두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가 함께 모여 환자들을 리뷰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했다. 병동에서 봤던 환자가 논의 주제 대상이 되고, 다음날 회진 때 수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무언가 치료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듯한 묘한 느낌이 들곤 했다.

오후에는 주로 외래에 들어가 교수님과 환자를 만나고 신체검진한 후, workroom 에 돌아와 함께 환자를 리뷰하였다. 한 시간에 수십명을 봐야하는 여건 상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외래와 달리, 실제로 하루 오후 외래 환자 수는 평균 다섯 명 정도로, 삼십분에 한 명의 환자가 배정되어있었다. 외래가 얼마나 한국과 다를까 기대하며 들어갔는데, 실제로 환자가 외래에 머무르고 간호사나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긴 것은 사실이었으나, 삼십분 내내 의사를 보는 것은 아니었다. 외래에 들어오면 간호사와 먼저 만나 주소에 대한 청취가 있고, 심전도를 찍은 뒤 의사를

만나는 식이었다. 간단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이 있고 그 다음 필요하면 바로 심초음파나 treadmill test 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래에 머무르는 시간이 한 두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실습 기간이 한 달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군의 환자들을 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 교수님마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환자들이 배정되어 있었다. 전기 생리를 주로 보는 교수님, 신생아 환자를 주로 보는 교수님, 성인이 된 선천성 심기형 환자를 맡아 보는 교수님 등 매일 경험하게 되는 환자군이 달라, 오늘 오후 외래는 무슨 환자들을 보게 될지 궁금해하며 외래로 향하곤 했다. 의무기록은 한국과 달리 진료실이 아닌 workroom 에서 이루어지고, 진료를 본 의사가 직접 기록하였다. 줄글로 굉장히 세세하게 풀어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성기록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았다. 타자보다 직접 말하면서 환자 리뷰를 스스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기록을 사용한다고 직접 말한 교수님도 있었다. 당연히 workroom 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과 1 대 1 로 환자를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았다. 환자군이 다양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인종이나 배경도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았다. 단일민족이라고 일컬을 만큼 하나의 인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다인종 국가에 걸맞게 여러 인종, 여러 나이대의 환자를 볼 수 있었다. 해외에서 온 환자나 이민을 막 와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사가 함께 진료실로 들어오거나 화상채팅 기계를 이용해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구렛나루를 기른 남자와 19 세기 보닛을 쓴 Amish 가족도 볼 수 있었고, 손가락이 올리브처럼 동그랗게 변할 정도로 청색증이 심각한 선천성 심기형을 앓고 있는, 그래서 palliative care 를 할 수 밖에 없는 중국 아이를 입양한 미국인 부부도 만날 수 있었다. 그만큼 다양한 환자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외래가 항상 새로울 수 있었다. 처음 외래에 들어갈 때는 긴장감에 너무 떨렸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환자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지고 신체 검진도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얼굴 색과 모습이 어땠든 의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두려움과 걱정이 서린 표정으로 집중하는 보호자와 그에 비해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다. 큰 아픔 앞에서도 의연하게 이겨내는 아이들을 보며,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역할이 환자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되었다.

마지막 주에는 cardiac catheterization lab 에서 catheterization 을 어떻게 하고, 어떤 아이들이 이런 procedure 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procedure 의 원리와 각각의 과정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며 실습을 마무리했다.

언제갈까 생각했던 사 주간의 실습기간이 어느덧 끝이 났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적이 굉장히 오랜만이었다. 첫 오리엔테이션 날을 떠올려보면, 모든 것이 새로웠던 그 곳에서 바짝 긴장해 있던 내가 기억이 난다. 사실 첫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었지만, 실습 일정을 온전히 내가 구성해야했던 것이 당혹스러웠었다. 병원에 도착할때만 해도 다른 과 실습들처럼 정해진 일정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담당 교수님과과의 첫 만남에서 들은 것은 순환기 내과에서는 실습 기간동안 이런 것을 제공하고 이제 너도 반 의사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짜서 실습하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몇 페이지 안되는 실습 안내서의 제목은 Pediatric cardiology rotation Survival guide 였다. 말 그대로였다. 안그래도 다른 나라의 새로운 병원에 와서 혼란스러운데, 나에게 갑작스레 온전한 자유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떨어지자 눈 앞이 캄캄했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하루의 실습을 시작해야했던 나는 몇 장의 종지와 실습 기간동안 빌려주신 두꺼운 교과서를 안은 채 병동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나중에는 얼굴이 익어 웃으며 아침마다 인사를 하게 되었지만, 첫인상이 험상궂던 스테이션 앞의 덩치 큰 경호 요원에게 스테이션의 위치를 물어보며 식은땀이 나던 것이 생각난다. 스테이션에 들어가 레지던트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앉아 회진을 기다렸다. 어떤 장소를 가던 나는 자기 소개부터 왜 내가 여기왔는지, 얼마나 있을건지에 대해 말해야했고, 내가 찾아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내가 딱 하는만큼 얻을 수 있는 실습이었다. 이런 환경이 애석하기도 했지만, 실습이 지나갈수록 내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욕심이 생겨, 오히려 이를 악물고 스케줄을 꽉꽉 채워 실습을 돌았다. 실습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면 긴장이 풀리고 진이 빠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새벽에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궁금해할수록 해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참여할수록, 이들도 나를 함께 'work'한다고 표현하며 일원으로 여기고 소통하였다. 사 주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실습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나에게서는 너무 당혹스러웠던 그 첫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습을 하면서 뭐랄까, 이 나라에 와서 내가 느낀 것은 동경도, 객관적으로 좀 더 나아보이는 근무 환경에 대한 선망도 아니었다. 그저 병원 안 모두에게서 느껴지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 그리고 환자 한 명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팀으로 치료 방침에 접근하는 방식이 좋았다. 한 환자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physiology 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의료진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부러움보다는 아쉬움이 컸다. 많은 환자 수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이 안타까웠다. 오히려 그 안에서 최선의 진료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과 펠로우들, 레지던트들이 대단했다. 3차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나 의료 수가 문제 등의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선이 있다면, 좀 더 나은 질의 의료 제공이 가능해지고 그 안에서 의료의 발전도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실습 기간 동안 오로지 환자,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료진과 병원 내 모든 직원들의 모습은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환자들의 아픔을 알아봐주고, 돌봐주는 것.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 쌓아야 하는 것은 실력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사 주가 이렇게 끝이 났다니 믿기지 않는다.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나 내가 배웠던 지식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 곳에서의 소소한 기억들은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학교와 그런 프로젝트에 감사드린다. 이번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능력있는 성숙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